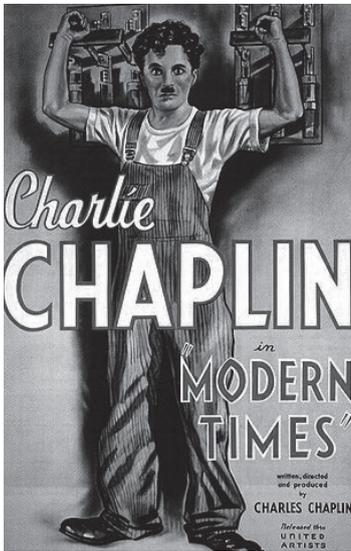


# 산업화, 기계화, 자동화, <모던 타임스>..... 그리고 찰리 채플린

한양의대 교수 / 송 재 철



<그림 1> 영화 '모던타임스의 포스터

인류는 산업혁명으로 얻은 엄청난 동력을 이용하여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기계를 이용한 공정자동화는 상품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보건의 관심사는 진폐증, 유해화학물질 중독 등의 전통적 직업병에서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의 업무관련성질환으로 바뀌었다.

오늘 소개할 영화의 주인공 '찰리 채플린'은 80년 전, 당시에 등장한 공정 자동화와 이로 인한 단순 반복 작업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모던 타임스(Modern Times)>라는 영화에 그의 통찰력과 앞선 시대정신을 담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우스꽝스런 마임극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안에는 통렬한 사회비판과 아련한 비애의 감상이 가득하다. 헐렁한 바지에 짝 끼는 상의, 조그만 모자, 큰 구두 차림에 짧은 콧수염, 나무지팡이를 흔들며 걷는 우스꽝스런 표정. 우리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지 알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찰리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벨트 위의 볼트에 너트를 조이는 일을 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던 그는 관절운동에 이상이 생기고, 작업하는 대상과 비슷한 모양의 것이면 눈에 띄는 족족 조여야하는 강박에 빠진다. 회사는 찰리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정신 병원에 보낸다. 그리고…”

직업의학을 전공자로서 나는 이 영화 관람을 계기로 천재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하였다.

딱 찬 화면의 시계를 타이틀백으로 새벽 6시에 맞춰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양떼에 비유하여 시작되는 화면이 인상적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어 오는 부품의 나사를 죄는 동작을 되풀이하는 공원(체플린)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휴식시간에 작업대를 떠나도 같은 동작을 계속한다. 사장은 화장실 가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식사시간이 가까워 자동급식기계의 도입도(결국 실패하지만) 시도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은 감정 없는 생산기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줄이고 작업시간만 늘이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2> 영화 '모던타임스'의 타이틀 백



<그림 3> 영화 '모던타임스'의 출근하는 노동자를 양떼에 비유한 장면



<그림 4> 영화 '모던타임스'에서



<그림 5> 영화 '모던타임스'의 라스트 신

육체적 정신적 혹사의 결과 그는 병에 걸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되었으나, 다행이 정상적인 생활리듬을 찾으며 회복한다. 퇴원 후 본의 아니게 집회의 주동자로 체포되거나 모범수로 석방되어 조선소 직공 등으로 전전하지만, 실수투성이인 그가 정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운이었을까, 우연히 부둣가에서 먹을 것을 훔치던 가난한 소녀(포렛 고다드: 채플린의 부인)를 만나 내일의 희망을 안고 걸어나는 라스트 신이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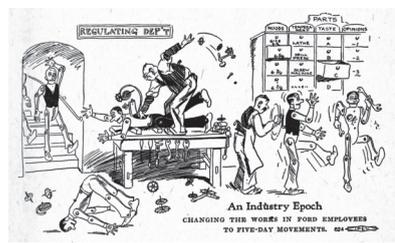
<모던 타임스>는 20세기 초 미국의 F.W. Taylor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의 원칙(1911년)’이란 논문에서 사업장의 근로자 능률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 할 수 있다. 테일러리즘으로 불린 그의 제안을 더욱 발전시킨 포드의 시도는 조립라인 및 연속공정 기술을 통하여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후에 포디즘[Fordism]이라는 경영학 용어로 자리 잡은 이 시스템은 대량소비시대의 총아가 되었지만, 곧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산업 및 생활폐기물을 양산하게 되었고, 결국 자본주의가 가져온 에너지 및 생태환경 위기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테일러의 경영철학(Taylorism)은 작업의 과학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고, ‘고임금 저노무비용(High Wages and Low Labor Cost)’을 실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현장의 근로자가 겪는 노동환경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의 방법론을 채용한 공장은 직능식 조직의 도입, 표준적인 작업방법과 이에 대한 표준시간이 작업순서에 따라 정리되어 있는 작업지도표의 활용, 과업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성과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하는 작업이 무엇을 위한 것이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큰 기계의 한 부속의 역할에 불과한, 인간성의 박탈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당시인 1911년에도 메사추세츠 주 워터타운의 근로자들은 그의 능률증진운동에 반대하는 파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근로자들 역시 포드가 계승 발전시킨, 자동화된 공정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6> 미국 포드자동차 공장의 조립라인



<그림 7> 테일러리즘에 기반을 둔 포드공정을 풍자한 만화

〈모던타임스〉는 1936년 미국 ‘유나이티드 아티스츠’의 흑백영화로 그가 제작·각본·감독·주연·음악을 직접 맡았다. 자동화시대의 부작용을 이미 80년 전에 내다보고, 시간의 노예가 된 인간을 통해 기계문명에 대한 도전과 자본주의의 인간성 경시에 대한 분노를 그리고 있다. 1914년 미국의 헨리포드가 자신의 자동차공장에 도입한 획기적인 공정인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한 지 20여 년 후에 이 영화를 통해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린 영화다.

위대한 영화인이었던 그는 1889년 4월 16일 런던에서 태어났다. 역시 연예인이었던 부모를 두었고, 부모의 이혼, 가난과 어머니의 정신질환, 고아원 생활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열 살에 극단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천부의 재능을 인정받아 17세가 되던 해 당시 영국 최고의 인기 희극극단 프레드카노극단 단원이 되었고, 1912년 이 극단의 미국 순회공연 때 영화제작자 세넷에 발탁되어 채플린의 재능이 꽃필 수 있었다.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수십 편의 단편영화에서 각본·감독·주연을 겸하였다. 눈물과 웃음, 유머와 페이스스가 당시 그의 희극에 대한 대명사였으나, ‘어깨 총(Shoulder Arms, 1918)’을 찍으면서부터 장년에 접어든 그의 인간적 체취가 사회적 풍자와 비판으로 드러나게 된다. ‘가짜 목사(The False Priest, 1923)’, ‘황금광 시대(Gold Rush, 1925)’, ‘파리의 여성(A Woman of Paris, 1923)’ 등이 당시의 그를 나타내는 걸작들이었다. 1947년 ‘살인광 시대(Monsieur Verdoux)’가 발표되자 미국의 보수 세력은 이 영화가 제국주의 전쟁의 범죄성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박해하였고, 1952년에는 ‘라임라이트(Limelight)’ 시사(試寫)를 위하여 고국(영국)을 방문한 사이 미국 정부는 그를 추방하였다. 이 충격으로 그는 이념적 중립국인 스위스에 정착하여, ‘뉴욕의 왕(A King in New York, 1957)’, ‘홍콩의 백작부인(The Countess from Hong Kong, 1966)’ 등을 발표하였다. 1972년 미국 영화아카데미는 그의 공로를 기려 아카데미 특별상을 수여하였고, 1975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방이 15개 있는 스위스 저택에서 자손들과 여생을 보내고, 위대한 천재는 1977년 12월 25일 향년 88세에 작고하였다. 🍷